

News

코인쇼크에 요구불예금 33兆 급증

디지털타임스

지난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59조5915억원으로 집계. 4월말 626.5조원 대비 보름 만에 33.1조원 급증
다시 은행에 돈이 몰리는 이유로 주식과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의 불안. 하지만 예· 적금 상품금리가 워낙 낮아 유동자금을 장기간 묶기 어렵다는 평가

NH농협 vs 하나금융, '옵티머스사태' 4천억대 소송전 예고

연합뉴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어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4천억원대의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무주택자 부동산 LTV 최대 60% 허용 '유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확대해 LTV를 최대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LTV 완화 폭을 90%로 크게 늘릴 경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폭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분위기

'상환유예' 대출 부실 우려에 은행 연체여신 관리 안간힘

뉴스토마토

은행들이 코로나19사태로 상환 유예한 62조원 규모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연체 여신 관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실자산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탓에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됐지만, 향후 발생할 부실을 미리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

보험사만 유리한 '셀프 손해사정' 뜯어 고친다

이데일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보험금 산정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50% 이상을 자회사에 몰아주면 선정 이유, 평가 결과 공시를 의무화
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제도를 활성화. 1H20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인 831억원을 자회사에 지급

'SK바사 역기저효과' 4월 주식 발행 96% 급감...회사채는 34% 늘어

뉴스1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이 전월대비 95.9% 급감했다.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공개(IPO)와 대기업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
지난달 기업들이 은행 대출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총 24조9113억원으로 전월 대비 4927억원(2%) 증가했다. 4개월 연속 발행 규모 증가

퇴직연금 고객 불잡자...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

매일경제

퇴직연금 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24일 신한금융투자는 MTS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25일부터 전액 면제. KB증권도 6월 중 수수료 면제 실시를 선언

토스보험파트너, 가입 설계사 5만명 돌파

아이뉴스24

토스보험파트너는 지난해 8월 정식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입 설계사 수 5만명을 돌파하며 비대면 상담 확대라는 보험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
피플라이프와 에이플러스에셋 등 보험법인대리점(GA)의 경우 소속 설계사 전원이 토스보험파트너를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채널로도 적극 활용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